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2015년 의원국외연수 보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 2015.7.12.~7.19.)



오 산 시 의 회

목 차

I. 연수개요	2
II. 연수일정	4
III. 주요 연수내용	5
① 덴마크 코펜하겐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5
② 독일 헤센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7
③ 독일 베르그스트라세 크라이스군 청소년청 ..	9
④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포츠레저 센터	11
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전거협회	13
⑥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16
IV. 연수결과	18
① 총 평	18
② 사진으로 보는 에필로그	20

2015년 의원국외연수 보고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 국외도시의 선진행정·우수시책·수범사례를 비교 연수하여 의정 역량강화
-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우수정책 도입 및 제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역할 수행

□ 연수방침

- 연수전 공식방문 기관·단체 사전 협의로 내실있는 연수
-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선진지 비교 견학 위주 연수

□ 연수기간 : 2015. 7. 12.(일) ~ 7. 19.(일) / 6박 8일

□ 연 수 국 : 유럽(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 연수인원 : 6명 (의원 4, 직원 2)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1	오산시의회	부의장	이상수	단장
2	오산시의회	의원	손정환	
3	오산시의회	의원	김명철	
4	오산시의회	의원	장인수	
5	오산시의회	사무과장	김장환	
6	오산시의회	주무관	한상용	

□ 보고서 작성자 : 이상수 부의장 외 의원 3인

□ 연수분야

구 분	내 용	담 당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운영 우수 사례 및 선진시설 견학	이상수 김명철 손정환
자원재활용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우수사례 및 선진시설 견학	손정환 이상수
청소년정책	청소년 우수정책 브리핑 및 선진 행정 견학	이상수 김명철 장인수
스포츠시설	스포츠레저 센터 운영 우수사례 및 선진시설 견학	장인수 김명철
자전거정책	자전거 우수정책 브리핑 및 선진 시설 견학	장인수 손정환

□ 공식방문

일 자	기관·단체명	소재지
2015.7.13.	Ørestad Plejecenter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덴마크 코펜하겐
2015.7.14.	ZAUG Rycycling GmbH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독일 헤센주
〃	Kreis Bergstrasse / Jugendamt 베르그스트라세 크라이스군 청소년청	독일 헤펜하임
2015.7.15.	Sport- und Freizeitzentrum Kalbach 스포츠레저 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5.7.16.	De Fietsersbond Amsterdam 자전거협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II

연수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 정
7.12 (일)	인천	SU 251	13:10	인천공항 출발
	모스크바	SU 2496	19:40	모스크바공항 출발
	코펜하겐	전용차량	21:15	코펜하겐공항 도착
7.13 (월)	코펜하겐	전용차량	10:00	코펜하겐 문화탐방(코펜하겐시청, 아말리엔보리궁전)
			12:00	중식, 노인복지시설 이동
			13:00	▶공식방문(코펜하겐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15:30	코펜하겐공항 이동	
	프랑크푸르트	SK 1635	18:10	코펜하겐공항 출발
		전용차량	19:40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7.14 (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08:00	부세크 이동
	부세크		09:00	▶공식방문(헤센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12:00	중식, 헤펜하임 이동
	헤펜하임		14:00	▶공식방문(베르그스트라세 크라이스군 청소년청)
	프랑크푸르트		16:30	프랑크푸르트 이동
			18:00	프랑크푸르트 도착
7.15 (수)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10:00	▶공식방문(프랑크푸르트 스포츠레저 센터)
			12:00	중식, 프랑크푸르트 문화탐방(전통시장, 뢰머광장)
			15:30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이동
		ICE	16:29	프랑크푸르트 출발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20:27	암스테르담 도착
7.16 (목)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10:00	▶공식방문(암스테르담 자전거협회)
			12:00	중식, 암스테르담 자전거시설 이동
			14:00	▶현장탐방(암스테르담 자전거시설)
			16:00	암스테르담 문화탐방(암스테르담왕궁, 담광장)
7.17 (금)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09:00	헤이그 이동
	헤이그		10:00	▶현장탐방(이준열사기념관)
			12:00	중식, 잔세스칸스 이동
			15:00	▶현장탐방(풍차마을, 마두로담)
	암스테르담		17:00	암스테르담 이동
7.18 (토)	암스테르담	SU 2551	13:05	암스테르담공항 출발
	모스크바		17:15	모스크바공항 도착
		SU 250	20:55	모스크바공항 출발
7.19 (일)	인천		11:10	인천공항 도착

Ⅲ

주요 연수내용

① 덴마크 코펜하겐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 명 칭 : Ørestad Plejecenter
- 홈페이지 : <http://orestadplejecenter.kk.dk/>
- 방문일자 : 2015. 7. 13.(월) 13:00

- 코펜하겐시 산하 시설로 양로원과 노인센터가 함께 있으며, 6층 규모의 건물이 6개가 “ㄷ”자 형태로 모여 있으며 전체면적 2,000m²임.
- 방2개로 구성된 주택 11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스토랑, 물리치료실, 치과 및 미용 등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고 카페와 공동활동을 위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어 거주자간의 사회적 관계 기능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임.
- 의료진, 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개별 치료가 필요한 거주자들을 관리함.
- 주거양로 시설 외에도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데이케어센터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을 비롯하여 당구,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시설의 입소자는 연령 및 장애 여부, 질병의 중증상태에 따라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수많은 양로원중 적합한 시설로 배치함.
- 특히 Ørestad Plejecenter 양로원은 장애가 있거나 약물중독, 또는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이 우선순위가 있지만 양로원의 개념보다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함.
- 아울러 거주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금전적 부담은 거의 없음.

○ 연수사진



디자인이 독특한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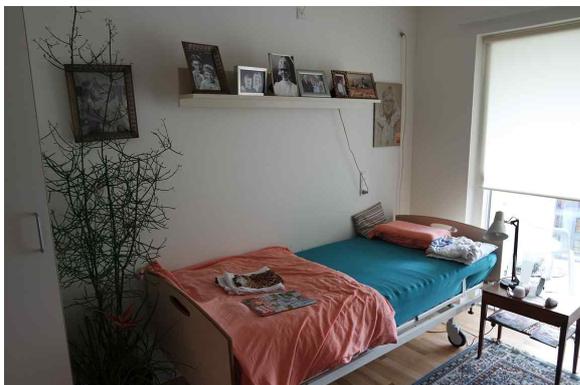
양로원 안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



층마다 색깔이 다른 내부 복도.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보다 쉽게 간호할 수 있게 설계하여 병원 같은 느낌이 남.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는 거실



의료용 침대가 있는 침실



공식방문 후 기념촬영
(입소자를 배려한 노인복지시설 간판이 없는 것이 눈에 띈다)

② 독일 헤센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 명 칭 : ZAUG Rycycling GmbH
- 홈페이지 : <http://www.zaugrecycling.de/das-unternehmen>
- 방문일자 : 2015. 7. 14.(화) 09:00

- 독일은 전체 배출되는 쓰레기 중 30%가 폐기처분되며 소각률은 4%에 그치고 있음. 그 외 나머지 쓰레기 65%는 철저히 재활용되며 재활용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 때문임.
- 많은 전문가들은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 비율은 높이는’ 독일 환경부의 방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 독일의 쓰레기 처리 정책의 키워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며, 분리배출 통은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데 ‘쓰레기는 자원이다. 자원은 곧 돈이다.’ 라고 강조하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임.
- 산업현장에서도 정확한 분리수거는 필수이며 주목할 만한 정책은 ‘Duales System’ 인데, 이것은 사업가 스스로 자신들의 쓰레기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임.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포장 재료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포장 재료를 선택해야 함.
- 그중 ZAUG Rycycling GmbH는 헤센지역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업체로 주로 가전제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1989년부터 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함.
- GmbH는 지자체가 59%, 회사가 49%의 지분을 가진 유한회사로 지자체가 쓰레기의 수집과 처리를 책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재활용품의 수거비용과 수거일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지만 내부운영에 관해서는 관련 법과 회계감사를 제외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받고 있음.

- 또한 재활용사업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함.
- 현재 18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그중 80여명은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업무를, 70여명 정도는 재활용품 수거를, 나머지는 지자체와 연결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를 기업과 공동으로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시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큼.

○ 연수사진



GmbH대표로부터 브리핑 받는 중



GmbH대표와 기념품 교환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시설견학



보안상의 이유로 공장내부 사진은 남지 못하고 아쉽게 단체사진만 찍음.

③ 독일 베르그스트라세 크라이스군 청소년청

○ 명 칭 : Kreis Bergstrasse / Jugendamt

○ 홈페이지 : <http://www.kreis-bergstrasse.de/>

○ 방문일자 : 2015. 7. 14.(화) 14:00

-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 지원(Jugendhilfe)’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실패처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청’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대상임.
- 모든 자치단체는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서서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함.
- Kreis Bergstrasse / Jugendamt는 헤센주 정부 산하 크라이스(한국의 군단위)에 있는 청소년청으로 자치단체 면적은 719km², 인구는 262,000(2013)명으로 인구 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청소년청이며 예산은 전체 군 예산의 약 11% 수준인 500억원 정도임.
- 크라이스군의 중심도시 헤펜하임에 있는 청소년청은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 및 가족문제 상담을 비롯하여 청소년 클럽관리, 청소년 범죄자 관리, 부모의 별거 및 이혼 관련 상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복지단체, 청소년 단체, 학부모회 등과 연계되어 청소년 복지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학교와 별도로 청소년을 연결하고 제도권 안에 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가정내 가정교육, 장애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정내 아이들의 입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 청소년, 가족 3가지 파트로 나누어 8개 부서에서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청 모토는 “가족을 돕는다.” 임.

○ 연수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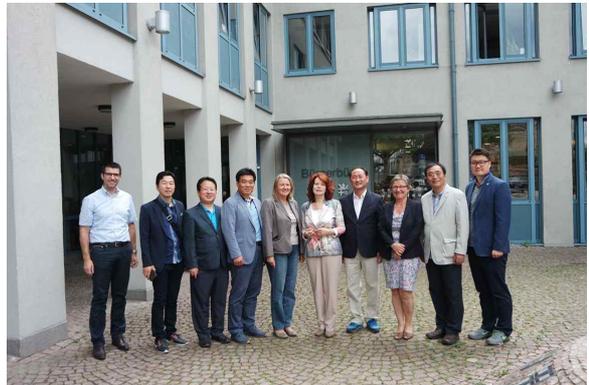
하계 휴가철 군청 문이 열리지 않아 크라이스군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잠시 망중한



청소년청장과 군의회 담당자까지 브리핑에 참석해서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에너지 절약에 익숙한 독일 사람들은 불도 켜지 않고 회의하는데 익숙한 듯



약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를 마치고 기념촬영.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와 얼굴에서 진정성 있는 준비와 열정은 충분히 전달된 듯

4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포츠레저 센터

- 명 칭 : Sport-und Freizeitzentrum Kalbach
- 홈페이지 :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95&_ffmpar%5B_id_inhalt%5D=23078
- 방문일자 : 2015. 7. 15.(수) 10:00

- 생활체육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전국 스포츠클럽이 9만개, 가입인원 3천만명(전체인구의 32.9%)으로 독일의 유명한 생활체육정책인 골든 플랜(Der Goldene Plan)에 의해,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다양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이 확충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포츠클럽이 조직되어 있음.
- 독일 스포츠클럽은 생활·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고, 엘리트선수가 선발되며, ‘인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여 메달을 따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큰 틀에서 우수선수들이 발굴되는’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학교·공공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이번에 방문한 Sport- und Freizeitzentrum Kalbach는 아마추어와 프로를 위한 최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트랙(200m 4레인), 직선코스(60m, 100m, 130m),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원반/창던지기 등을 위한 육상홀, 핸드볼, 농구, 배구 등(15m x 27m 3구역)과 500명 관중석을 갖추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 실내 테니스홀, 그 외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 룸, 마사지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음.
- 육상홀은 관중석 1,000석 규모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도 연습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7월 개최된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독일 선발전도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연수사진



스포츠레저 센터에 대해 브리핑 받는 중



국제규격의 육상홀 전경
프로와 아마추어가 시간대별로 함께 사용



각종 시설 및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는 중



부대시설인 체력단련시설 전경



실내 테니스장 전경



육상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전거협회

- 명 칭 : De Fietsersbond Amsterdam
- 홈페이지 : <http://fietsersbond.amsterdam/projectbureau>
- 방문일자 : 2015. 7. 16.(목) 10:00

- 네덜란드의 자전거 정책인 플러스 네트워크(plus networks)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 모두 1800만여대의 자전거가 보급, 인구 1인당 1.1대를 보유한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보다 자전거 숫자가 많은 나라임.(덴마크 0.83, 독일 0.77, 스웨덴 0.67, 벨기에 0.5, 영국 0.4, 프랑스 0.34 등)
-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은 7.5km 이하의 단거리 이동에서는 전체 교통수단의 34%, 7.5~15km의 이동시에는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전체 교통량의 약 26% 정도를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등하교 교통량은 50%, 출퇴근 교통량은 25%, 단순 사교목적 방문 등에서도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De Fietsersbond Amsterdam은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자전거 협회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공공기관 외에도 CRWO, KpVV, Fietsberrard 등의 민간단체들이 자전거 정책 아이디어 개발, 자전거 장려 관련 홍보 등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그 중 Fietsberrard는 교통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임.
- 각 협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자전거 정책 아이디어 개발, 권고사항/가이드라인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협조하고 있음.
- 아울러 네덜란드의 시대변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률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1970년대까지는 경제발전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줄었으나 이후 40%대까지 상승하였음.

- 자전거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을 보면 1960년대 이후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1972년 안전과 어린이 보호에 대한 국가적 시위가 발생되어 정치인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TURNING POINT가 형성됨.
- Space, Time, Safe, Easy, Fast는 네덜란드 자전거정책의 주요 근간임.
- 아울러 암스테르담 구도심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으로서 수로로 얽힌 복잡한 도로에 일방통행 도로 정책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분리정책을 씌으로써 구도심의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도보 또는 자전거로 시내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연수사진



자전거정책 브리핑 전 담소 중



자전거정책 브리핑 받는 중



거리로 나와 자전거도로 현장탐방 중



시내 여러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 설명중



자전거 주차장 잠금장치 등 확인 중



인도와 차도, 자전거도로가 잘 분리된 시내 도로



중앙역 인근의 대형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도로 현장탐방을 마치고 기념촬영

⑥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 홈페이지 : <http://www.yijunpeacemuseum.com/#>

○ 방문일자 : 2015. 7. 17.(금) 10:00

□ 기념관 개요 □

- 개관일 : 1995년 8월 5일
- 위 치 : 네덜란드 헤이그
- 기념관 유래 :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무효와 대한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하여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명의 밀사가 머물렀던 곳임. 기념관은 천년고도 헤이그의 370년 된 고옥으로 이준열사가 순국하신 유럽에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임.
- 개관목적 : 이준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족 후대와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함.
- 운영자 : 이기항, 송창주 부부
- 방문의의 :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이준열사 순국 108주기이자 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일임.
당시 이집에 머무시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애쓰셨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1907. 7. 14.)하신 이 자리를 개인사재를 털어 애국심을 고취하고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자 애쓰고 계신 이기항, 송창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연수사진



기념관 설립자 이기항(평택시 진위초등학교 졸업) 선생님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이준열사의 흉상 앞에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과 동시에 기념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기념관 홍보물

Yi Jun Peace Museum

이준열사 기념관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이 준은, 이준(李準)이 1907년 7월 14일 순국하신 의사의 고향입니다.

열사께서는 그 당시 'De Jong Hotel'이던 이 집에 머무시면서 반국평화회의를 창설하여 용사들의 무모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애쓰셨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태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불을 못 이키신 이준열사께서는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란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집에서 출간하신 순국하시어 2,000원 동량의 가슴에 안을 남기고 열일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유언에 따라에는 열일독립운동유족지회(獨立運動遺族會)인 이집에 이준열사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을 1995년 8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기념관의 설립 목적은,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릴뿐만 아니라, 민족후대에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正義)와 평화(平和)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장(教育場)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1995.8.5
설립(Founder): 사단 법인 이준 아카데미

● 개관 시간 Opening Hours
Monday-Friday : 10:30-17:30
Saturday : 11:00-16:00 Sunday : Closed

● 주소 Address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Vaagenstraat 124/124A
2512 EA The Hague(Den Haag)
The Netherlands
Tel : +31-807-355 2510
Mobile : +31-65-559 753 90
E-mail : yijunpeacemuseum@millicommail.com
Website : www.yijunpeacemuseum.com

이준열사의 약력 Yi Jun's Personal History

1859.12.18. ~ 1907.7.14.

1859년 함경남도 북청군 출생
1887년 북청 향리(邑司) 장려
1889년 경학원 설립, 인성양재교 노년
1889년 일본법률강습소 졸업 (제 1호)
1892년 일본 와세다 대학 법과 졸업, 독립협회 가입
1904년 공민회(신일) 설립회에 대항하여 (조약) 회장에 선출
1905년 용사들의 방위 및 용사들의 지원운동 전개
1907년 국권회복회 회장에 선임, 보광학교 설립, 경미원 감사를 임명(한국 최초 감사)
1907년 교육총재의 특사로 제2차 반국평화회의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다가 헤이그에서 순국, 헤이그 공묘로써 안장(1907-1983)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1963년 유해 국내 봉환, 동년 10월 4일 국립묘지 거행 후 서울 수유리 묘에 안장, 그 곳에서 영면하고 계신
1995년 그가 순국하신 향리인 헤이그 옛 Hotel De Jong에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개관
2007년 대한민국(국보훈처) 추서, 이준아카데미 주관으로 순국 현 제(헤이그)에서 성대한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7월 14일)

이상설 열사 약력 Yi Sang Sul's Personal History

1890.12.29.~1917.8.2

1870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척기 요망 대표 부장
1904년 용사들의 방위 및 용사들의 지원운동 전개
1904년 북청으로 망명, 그곳에 후원장식을 위한 '서민' 서당 설립 및 운영
1907년 헤이그에서 활동 중, 이준의 시신을 헤이그에 묻고, 미국을 거쳐 다시 연해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 전개
1910년 13세의 권, 김형외, 대한청년군 결성 등 독립운동 전개
1917년 연해주 시골 마을 스노우에서 순국, 유언에 따라 그의 재할 수위를 강하게 복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위중 열사 약력 Yi Owi Jung's Personal History

1887.7. ~ 1987.7.

1887년 서울 출생, 7세부터 구한말 천도교인 이위중이 이준 열사의 의교를 따라 Washington, Paris, St. Petersburg에 살아 열의, 철학, 러시아어에 능통함
1905년 용사들만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11월 제외국에 배회되자, 이방인 공사는 아랍 어휘를 함께 러시아에 남아 방생생활을 하다가 1911년 이방인은 그에게서 자국 순방
1907년 교육총재는 외국어에 능통한 이위중을 이준, 이상설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임명, 동년 7월 8일 당시 헤이그 프레데리크에서 '한국외교' 연설을 함
1907년 이준열사를 헤이그 보좌에 한양(서양) 7월 14일, 정미 9월 5일 2512 EA The Hague(Den Haag)에서 순국
1917년 1917년 제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인으로 참전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전함
1962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1986년 정부는 광복 50주년 행사를 그의 유족인 최순호, 최영태, 최영태(1935년 8월 5일 한국에 초빙함, 그는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음)

이준열사 흉상 제막식

2015년 8월 15일 17일, 우리나라의 정서 등의 알아 감제, 불멸으로 제정된 이 녹사(녹사) 인하여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다. 이 녹사의 절망감을 제2차 반국평화회의의 앞에 호소하다가 1907년 이준열사가 헤이그에서 순국하였다. 그 후 1907년 8월 5일 일본의 식민정부가 시작되고 1945 해방 후에도 오늘에 이르러가서 한 세기가 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의하여 계속되는 역사적, 문화유산 부 문제, 남북문제, 6.25전쟁, 독도문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남북 분단... 등의 후회가 바로 용사들의 것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는 격언이 있다.

이준열사기념관은 헤이그 11월 달 동안 ‘잊지 말자! 용사들’을 뜻하는 Kamweesaw 캠페인을 통해 ‘잊지 말자! 용사들’ ‘Never Forget, Never Again!’ Campaign을 전개한다.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2년 11월 17일, 이준열사기념관 개관식, 헤이그

▶ 대한민국 헌정 50주년 ‘잊지 말자! 용사들’ 캠페인 후원회(2012.11.29)

이준열사 흉상 제막식

2015년 8월 15일, 이준열사 흉상 제막식

1905년 11월 17일, 우리나라의 정서 등의 알아 감제, 불멸으로 제정된 이 녹사(녹사) 인하여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다. 이 녹사의 절망감을 제2차 반국평화회의의 앞에 호소하다가 1907년 이준열사가 헤이그에서 순국하였다. 그 후 1907년 8월 5일 일본의 식민정부가 시작되고 1945 해방 후에도 오늘에 이르러가서 한 세기가 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의하여 계속되는 역사적, 문화유산 부 문제, 남북문제, 6.25전쟁, 독도문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남북 분단... 등의 후회가 바로 용사들의 것이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는 격언이 있다.

이준열사기념관은 헤이그 11월 달 동안 ‘잊지 말자! 용사들’을 뜻하는 Kamweesaw 캠페인을 통해 ‘잊지 말자! 용사들’ ‘Never Forget, Never Again!’ Campaign을 전개한다.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2년 11월 17일, 이준열사기념관 개관식, 헤이그

▶ 대한민국 헌정 50주년 ‘잊지 말자! 용사들’ 캠페인 후원회(2012.11.29)

이준열사의 약력 Yi Jun's Personal History

1859.12.18. ~ 1907.7.14.

1859년 함경남도 북청군 출생
1887년 북청 향리(邑司) 장려
1889년 경학원 설립, 인성양재교 노년
1889년 일본법률강습소 졸업 (제 1호)
1892년 일본 와세다 대학 법과 졸업, 독립협회 가입
1904년 공민회(신일) 설립회에 대항하여 (조약) 회장에 선출
1905년 용사들의 방위 및 용사들의 지원운동 전개
1907년 국권회복회 회장에 선임, 보광학교 설립, 경미원 감사를 임명(한국 최초 감사)
1907년 교육총재의 특사로 제2차 반국평화회의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다가 헤이그에서 순국, 헤이그 공묘로써 안장(1907-1983)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1963년 유해 국내 봉환, 동년 10월 4일 국립묘지 거행 후 서울 수유리 묘에 안장, 그 곳에서 영면하고 계신
1995년 그가 순국하신 향리인 헤이그 옛 Hotel De Jong에 이준열사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개관
2007년 대한민국(국보훈처) 추서, 이준아카데미 주관으로 순국 현 제(헤이그)에서 성대한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7월 14일)

이상설 열사 약력 Yi Sang Sul's Personal History

1890.12.29.~1917.8.2

1870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척기 요망 대표 부장
1904년 용사들의 방위 및 용사들의 지원운동 전개
1904년 북청으로 망명, 그곳에 후원장식을 위한 '서민' 서당 설립 및 운영
1907년 헤이그에서 활동 중, 이준의 시신을 헤이그에 묻고, 미국을 거쳐 다시 연해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 전개
1910년 13세의 권, 김형외, 대한청년군 결성 등 독립운동 전개
1917년 연해주 시골 마을 스노우에서 순국, 유언에 따라 그의 재할 수위를 강하게 복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위중 열사 약력 Yi Owi Jung's Personal History

1887.7. ~ 1987.7.

1887년 서울 출생, 7세부터 구한말 천도교인 이위중이 이준 열사의 의교를 따라 Washington, Paris, St. Petersburg에 살아 열의, 철학, 러시아어에 능통함
1905년 용사들만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11월 제외국에 배회되자, 이방인 공사는 아랍 어휘를 함께 러시아에 남아 방생생활을 하다가 1911년 이방인은 그에게서 자국 순방
1907년 교육총재는 외국어에 능통한 이위중을 이준, 이상설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임명, 동년 7월 8일 당시 헤이그 프레데리크에서 '한국외교' 연설을 함
1907년 이준열사를 헤이그 보좌에 한양(서양) 7월 14일, 정미 9월 5일 2512 EA The Hague(Den Haag)에서 순국
1917년 1917년 제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인으로 참전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전함
1962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1986년 정부는 광복 50주년 행사를 그의 유족인 최순호, 최영태, 최영태(1935년 8월 5일 한국에 초빙함, 그는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음)

IV

연수결과

1 총 평

- 이번 국외연수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청소년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레저 센터, 자전거도로 활성화정책에 대한 주제를 갖고 2015년 3월부터 계획하고 전문연수기관의 자문을 받아 공식방문 위주로 연수를 기획하였음.
- 연수 전 의원별 관심 분야 지정 및 역할 분담으로 사전 공부 후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 제고 및 의정활동에 통해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음.
- 덴마크 코펜하겐 시립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유럽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시 부분 도입도 검토가 필요함.
- 독일 헤센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는 폐가전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용역하여 환경보호, 고용창출, 수익 사회환원시스템의 적극 검토가 필요함.

- 독일 베르그스트라세 그라이스군의 청소년청에서는 미래의 꽃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집행 정책은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서 국가차원의 시행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시 부분 도입도 검토가 필요함.
-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포츠레저 센터에서는 생활체육의 큰 틀에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하는 선진 스포츠시스템 시설로서 유희 시간대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며 우리시도 학교 및 공공 체육 시설을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할 것임.
-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이 가장 잘 갖춰진 국가로서 자동차 이용보다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기반을 설치하고 국민이 이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의식은 우리도 널리 본 받아야 할 사항이며 우리시도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를 필히 반영하고 기존 도로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연수기간이 6박 8일이지만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하면 실제 5일간의 일정으로서 그나마 이동시간을 빼면 짧은 연수기간중 3개국 5개소의 공식방문과 4개소의 현장탐방은 평가 받을 만하며, 시간이 빠듯한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익힘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임.

2 사진으로 보는 에필로그



출발



지루한 환승 대기 중



덴마크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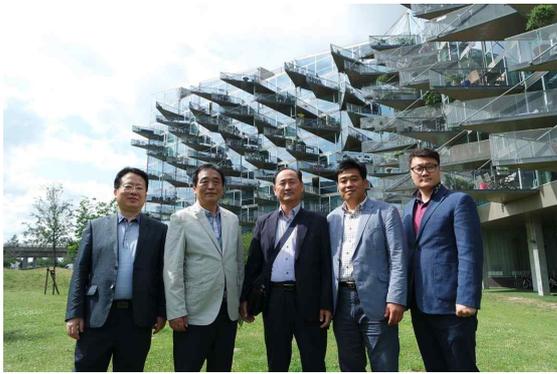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을 만든 인어공주상



덴마크 국회의사당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코펜하겐 시청



디자인의 강국 덴마크(배경은 아파트 베란다)



부자나라 독일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



손님이 와도 불을 켜지 않는 독일의 절약정신



독일 작은 마을 곳곳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황제대관식이 열렸던 뢰머광장과 구시청사



프랑크푸르트 전통시장



기차(ICE)를 타고 도착한 암스테르담



자전거도로와 차도, 철도가 혼재된 도로



온갖 자전거가 산재한 자전거 주차장



검소한 덴마크 국회의사당



가슴 뭉클한 이준열사기념관



네덜란드 대표이미지 풍차의 나라



번화가 안에도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



지친 다리를 잠시 쉬며...



네덜란드 관광명소를 축소한 모형도시 마두로담



귀향